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17년 3월 전화 051-510-1501
발행인 조강희 편집인 이선진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부 전화 051-510-1932

학사 일정

2017. 2. 24(금)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3. 2(목)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제1학기 개강
20(월)~24(금)	후기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24(금)	후기 학위청구자격 외국어 시험
31(금) ~ 4. 5(수)	2017. 1학기 수강취소(W) 신청
4. 11(화)	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17(월)~22(토)	2017. 1학기 중간고사
5. 15(월)	개교기념일
18(목)~22(월)	여름계절수업 수강신청
6. 14(수)~20(화)	1학기 기말고사
21(수)	하기휴가 시작
21(수)~7.18(화)	여름계절수업
7. 6(목)	후기 학위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14(금)~24(월)	2학기 국·영문 교수계획표 입력

Contents

02 | 미라네 단상 · 교수동정 · 인문대 소식 03 | 인문대 소식 · 학과·연구소 소식 08 | 신간소개

고교생과 함께 하는 인문학 어울림 마당 -부산대 인문학으로 통(通)하다

인문대학에서는 교육부 고교교육정상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10월 15일에 고교생과 함께 하는 효원 인문학 어울림 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부·울·경 지역 28개교에서 78명의 고교생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내용은 인문학 특강(고고학과/배진성 교수), 효원 인문인특강(국문과 졸업/윤정민 중앙일보 기자, 영문과 졸업/하미영 벅스코 차장), 초청공연(음악학과 합창단, 부산대 우수동아리 UCDC), 인문대학 12개 학과 학생회에서 준비한 재학생들의 학과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대학과 고교의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인문학에 대한 고교생들의 이해를 제고함과 동시에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 자리가 되어 참석한 고교생 및 인솔교사의 열띤호응을 받았다.



『일본 속의 한국문화 학생 조사단』 참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간 인문대학 학생 22명이 일본 천리대학 학생들과 함께 나라(奈良),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시가(滋賀), 그리고 미에(三重)에 남아있는 한국문화를 조사하면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한국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다. 한일 양국 학생이 기간 내내 조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교류를 쌓을 수가 있었다.

2017년 2월에는 일본 천리대학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속의 일본」이라는 주제로 인문대학 학생들과 필드워크를 하고, 본 대학 행사장에서 「한국 속의 일본, 일본 속의 한국」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체험은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가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외무성 주최로 일한문화교류기금에서 실시하였으며 모든 경비를 지원 받았다.





매화 한 송이

류숙영
국어국문학과

2월 어느날, 오늘이 어제인 듯 되풀이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인문관 앞을 지나고 있었다. 추위를 많이 타기에 찬 기운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잔뜩 움추린 채였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이제 막 분홍빛 꽃망울이 벵그리진 매화 한 송이었다. 놀랍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만 낯설지는 않았다. 작년 이맘때 나에게 똑같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전해 준 그 가지의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꽃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그 꽃은 이제야 자기를 알아보겠느냐며 나를 향해 방금거리는 듯했다. 올해 들어 이곳을 수십 차례 지나다녔지만 이제야 그 꽃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된 셈이다.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왜 내가 매화 한 송이에 이토록 격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 꽃이 아름다웠기 때문일까? 그 꽃을 통해 여태 기다려온 봄을 비로소 느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꽃을 통해 어김없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를 새삼 깨달았기 때문일까? 제법 깊은 생각 끝에 얻은 결론은, 그 매화 한 송이가 문득 나 자신의 실체와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데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다.

작년에 핀 그 꽃이 올해 또 그 자리에 피어주어서 고마운 것이다. 살아 있다는 것의 증거는 어쩌면 이렇게 되풀이되는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어제의 일상이 오늘도 되풀이된다고 지겨워하고 짜증낼 일이 아니다. 올 봄 매화 한 송이를 대하듯 그렇게 오늘 아침을 반갑게 맞이할 일이다. 늘 겨울일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늘 봄이기를 바라는 일도 없어야겠다. 하루하루가 되풀이되듯 흘러가지만 그것이 모여야 계절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모인 세월의 무게가 계절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추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매화 한 송이가 겨우내 마냥 봄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단단한 나뭇가지의 껍질 속에 갇힌 채 그 여린 속살의 몸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 밖을 향해 몸부림치며 오랜 시간을 버티어냈던 것이다. 나의 하루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지금 여기서 멈추거나 되돌아갈 수는 없다.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굴렁쇠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자연의 섭리로 알고 살아가야겠다. 안도현 시인은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봄이 와서 매화가 핀 것이 아니라, 매화가 피어서 봄이 온 것이다. 나도 나의 계절을 재촉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을 준비해야겠다.

단신

● 윤애선 교수(불어불문학과)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15년도 학술, 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조강희 교수(일어일문학과)는 『조선자료에 의한 일본 음성·음운 연구』를 통하여 학술연구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일본국의 일본총합 학술학회에서 학술상을 받았다.

● 카잔 연방대학교 및 로바첵스키 학술도서관 방문

10월 6일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김인택 소장과 한지형 연구교수는 카잔 연방대학교를 방문하여 동교 로바첵스키 학술도서관의 유서 깊은 자료들을 열람하였다. 특히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20세기 초의 한-러 관계를 보여주는 『고려인을 위한 키릴문자』(1902), 『노한회화』(1904)와 같은 중요한 서적들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브게니 니콜라예비치 스트루코프 도서관장과 면담하고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의 향후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문대 소식

2017학년도 1학기 학과장 명단

2017학년도 제1학기 학과 및 협동과정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는 학과장 및 협동과정 전공주임 교수는 다음과 같다.

- | 국어국문학과장 김경연 교수 (2016. 1. 15)
- | 중어중문학과장 이지은 교수 (2016. 8. 1)
- | 일어일문학과장 노선숙 교수 (2017. 3. 1)
- | 영어영문학과장 전지현 교수 (2017. 1. 15)
- | 불어불문학과장 이송이 교수 (2016. 3. 1)
- | 독어독문학과장 인성기 교수 (2017. 2. 1)
- | 노어노문학과장 양민중 교수 (2017. 2. 1)
- | 한문학과장 이준규 교수 (2017. 3. 1)
- | 언어정보학과장 권순복 교수 (2016. 3. 1)
- | 사학과장 이수훈 교수 (2017. 2. 1)
- | 철학과장 정해왕 교수 (2017. 1. 1)
- | 고고학과장 배진성 교수 (2015. 9. 1)
- | 인지과학 전공주임 권순복 교수 (2015. 9. 1)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주임 이재봉 교수 (2017. 3. 1)
- | 과학기술인문학협동과정 전공주임 주광순 교수 (2016. 9. 1)

2016학년도 인문대학 전기 박사학위수여자 명단

- 왕영박(국어국문학과) 「한·중 사동과 피동 대조 연구」 (지도교수: 박소영)
- 이상옥(국어국문학과) 「한·중 합성어 대조 연구」 (지도교수: 박소영)

- 박유진(영어영문학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동사구 생략 구문 내 재귀사 해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안동환)
- 오현영(영어영문학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통사적 섬 효과 인지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안동환)
- 정상모(영어영문학과) 「영어 보충어절 시제표지의 의미해석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안동환)
- 박세리(영어영문학과) 「대학생들의 영어 어휘 및 독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상도)
- 윤예솜(영어영문학과) 「최적성 이론에 기반한 영어의 어중 약모음 탈락현상 연구」 (지도교수: 이상도)
- 김태영(사학과) 「18세기말 유학자들의 천주교 수용과 그 성격」 (지도교수: 윤용출)
- 정수동(철학과) 「麗末鮮初 儒教와 佛敎의 相互對應에 관한 연구 - 鎮護國家說과 異端의 論難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용환)
- 김혜영(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 연구」 (지도교수: 김명순)
- 윤선미(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어(KSL) 교육과정 실행 요인의 작용 양상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병운)
- 배인호(인지과학협동과정) 「진동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평면 스캔 디지털 카이모그래피의 이중음성 감별효과」 (지도교수: 권순복)
- 김근효(인지과학협동과정) 「후두내시경 검사와 평면 스캔 비디오 카이모그래피 동시 측정의 효과」 (지도교수: 권순복)
- 성경수(과학협동과정) 「현대의 탈신화화와 기술(記述)적 접근」 (지도교수: 김유신)
- 김구식(과학협동과정) 「과학이론과 은유 - 지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유신)
- 최종현(과학기술협동과정) 「악물에 의한 인지 향상에 관한 윤리적 고찰」 (지도교수: 김유신)
- 신재식(한문학과) 「正祖朝 經學의 顧炎武 經說 수용 양상」 (지도교수: 강명관)

인문학 최고과정 학술 현장 답사

10월 15일 인문학 최고과정 원우들이 경북 안동과 영주 지역 일대에 학술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 안동 하회마을 충효당, 병산서원과 영주 부석사, 소수서원을 둘러보며 선조들의 옛자취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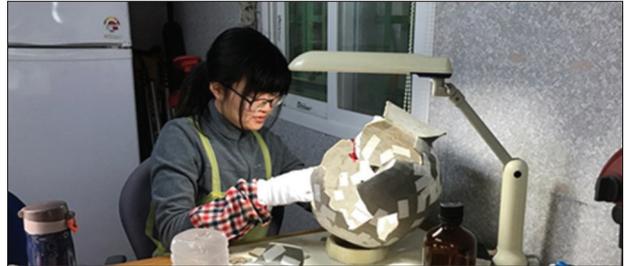
인문학 최고과정 제2기 수료식

인문학 최고과정 제2기의 수료식이 12월 7일 상남국제회관에서 거행되었다. 또한 제2기 수료생 44명 전원은 우리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 2천만 원을 출연했다.



고고학과

◎ 2016년 고고학과 동계방학기간 중 현장실습 실시
동계방학을 맞이하여, 이번에도 여러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여 좋은 경험을 쌓고 왔다. 이번 동계실습은 총 5명의 학생(부산시립박물관 1명, 국립김해박물관 2명, 경산 중산동현장 2명)이 실습을 진행하였다.



국어국문학과

◎ 제18회 전국 고교생 효원문예백일장 개최
10월 9일, 부산대학교 주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관으로 제18회 전국고교생 효원문예백일장을 개최하였다. 전국 140개 고교 439명(산문부 249명, 운문부 190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한 이번 백일장은 엄격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참방 21명이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이번 백일장의 글제는 '달력(운문)과 '바람'(산문)이었으며, 장원은 유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해솔 학생이 수상하였다. 이번 백일장에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성석제의 초청 강연으로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 ㈜미래와 도전 대표 초청강연



11월 18일 인문관 412호에서는 ㈜미래와 도전 이병철 대표의 초청 강연이 있었다. 이병철 대표는 매학기 국어국문학과에 발전기금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는 원자력 회사의 대표이다. 이병철 대표가 원자력과 어떻게 인연을 맺고, 어떻게 회사를 키워왔는지에 대한 경험을 직접 들으면서 국어국문학과 학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노어노문학과

◎ 노어노문학과 국토대장정
노어노문학과에서 교수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 학생들의 단합을 위하여 경상북도에 있는 주왕산으로 2박 3일간 국토 대장정을 떠났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선후배 간에 더 돈독해 질 수 있는 기회였고, 평소 애 학생들이 다소 어려워할 수 있는 교수들과도 한결 친밀해질 수 있었다. 또한 선후배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직접 산행을 함으로써 학과 사람들 간의 친밀감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불어불문학과

◎ 2016 불문인의 밤 개최

11월 19일 부산대 앞 '스테이지 온 더 문'에서 불문인의 밤이 개최되었다.



사학과

◎ UNESCO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국립중앙박물관 견학

11월 22일 현장실습 및 취업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과 인솔 아래 학부생 10여명이 UNESCO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국립중앙박물관을 견학했다. UNESCO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원장과 만나 교육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부서 방문 체험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여 학에 관련 견학을 실시하였다. 사학과 전공을 살린 취업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실무자를 직접 만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을 실제로 탐방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의지 고취와 함께 학과의 수업 및 취업 분위기가 개선되었다.



◎ 2016년 사학과 향토사 사료 발굴 및 탁본 현장 실습



10월 30일 수영사적공원에서 학부생 20여명이 수영구와 관련된 향토사적 답사와 함께 현장의 금석문을 탁본하는 법을 실습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사학과 정영현 강사가 수영사적공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탁본 방법을 설명하고 실습을 지도하였다. 탁본을 통하여 중요한 역사 사료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여 금석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전공 지식 함양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정신을 기르고, 나아가 새로운 지역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방안을 학습할 수 있었다.

언어정보학과

◎ 기업탐방

11월 4일에 부산 KBS홀로 기업탐방을 다녀왔다. 작가, PD, 기자, 아나운서 등 방송 관련 꿈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방송제작 및 송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현장의 직·간접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견학프로그램은 취업정보 제공 및 진로 탐색이 큰 도움이 되었다.



◎ 2016 산장학교

2017년 1월 6일 밀양 얼음골 한옥펜션으로 2박 3일간의 산장학교를 다녀왔다. 30여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한 산장학교에서 학생들은 친목을 도모하고 추억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2016 취업특강 및 동문회

언어정보학과는 12월 3일 인문관 315호에서 취업특강을 실시하였다. 송지혜(7급 행정 국가직), 이종우(KB국민은행), 최명수(KB손해보험) 졸업생이 취업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학부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업특강 후 동문회를 열어 선후배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어영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금 수여식

영어영문학과는 8월 19일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매학기 영어영문학과는 동문회 발전기금 출연으로 학부 각 학년의 성적우수자를 선정하여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새벽소리 여름 정기 워크숍

새벽소리는 9월 5일 여름 정기 워크숍 공연을 하였다. 영어영문학과 대표 동아리인 새벽소리는 매년 학과 및 인문대와 부산대학교 학우 전체를 대상으로 영문과 새내기 맞이 공연, 여름 정기 워크숍, 영문인의 밤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16 영어영문학과 가을 산행

영어영문학과 석, 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지난 11월 19일 교수님들과 함께 양산 법기수원지로 가을 산행을 다녀왔다.



◎ 저명학자 초청 특강 - 루이스 곤잘레스 교수(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2017년 1월 16일 인문대 교수연구동에서 영상 번역 전문가인 루이스 곤잘레스 교수를 초청하여 번역 관련 강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과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생들이 영상 번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는 11월 3일 진주에 위치한 진주성과 진양호공원으로 학부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淸州와 論介>라는 주제로 진주 전투, 논개, 논개와 함께 사망했다는 説의 주인공인 게이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에 대해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12월 23일에 벅스코로 기업 탐방을 다녀왔다. 2017년 1월 12일에는 주부산일본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와 한국인 직원과의 만남을 가졌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여러 경험을 통해 외교관이 된 영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일본어 공부법과 활용법을 터득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간접체험과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사관 직원이 된 한국인 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어 활용법과 취업 스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 1월 13일에 야마구치 협립 대학 25명의 학생들이 일어일문학과를 방문하였다. 일어일문학과 학생들과 일본의 초등학교, 일본의 신화, 패션쇼, 문화재 등을 소재로 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일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중어중문학과

◎ 2016학년도 중어중문학과 졸업생 취업 특강

중어중문학과는 12월 23일 재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와 선배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위해 졸업생 취업 특강을 마련하였다. 각 분야의 시장을 이끄는 선도 기업에 재직 중인 졸업생 2명(07학번 김원호, 09학번 김지현)과 졸업예정자(10학번 이우익)의 취업 현장과 취업 준비 이야기는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며, 질의와 답변의 시간은 졸업생과 재학생이 소통의 장이 되어주었다.



철학과

◎ 2016년 제1회 철학과 콜로키움 개최



11월 24일 2016년 제1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중국 인민대학 장원시 교수가 『노동소의학설과 인간과 동물의 대비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발표내용에 대해 발표자와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이번 콜로키움에서 장원시 교수는 중국의문화와 중국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 2016년 제2회 철학과 콜로키움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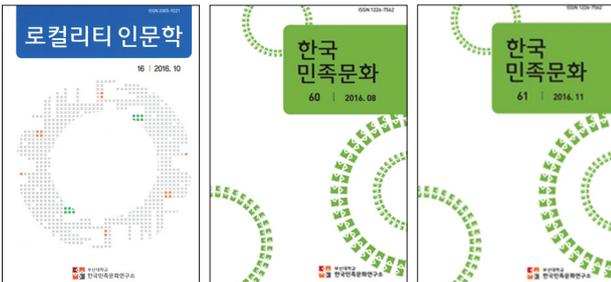
12월 8일 2016년 제2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윤종갑 교수가 『수행으로서의 철학: 다르샤나(darśana)로서 인도철학』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하였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출판

『로컬리티 인문학』 제16호 발간(2016.10.31.) 및 『한국민족 문화』 60, 61집 발간(2016.8.31., 11.30.)



학술행사

로컬리티의 인문학 제33~36회 학술세미나

- 제33회 외부의 잠재성과 로컬리티: 사건, 정치의 토포스
 - 일시: 2016.9.28.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소회의실
 - 발표: 장세룡(부산대) 외 3명
- 제34회 로컬리티와 포스트모던 공간성
 - 일시: 2016.10.21.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 발표: 이명수(부산대) 외 3명
- 제35회 트랜스로컬리티와 재해석
 - 일시: 2016.10.31.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소회의실
 - 발표: 문재원(부산대) 외 3명
- 제36회 지역사회와 정치
 - 일시: 2016.11.18. • 장소: 부산대학교 인문관 교수연구동 209호
 - 발표: 조정민(부산대) 외 1명

로컬리티의 인문학 팀 세미나

- 「사건, 정치의 토포스 총서팀 협동세미나」
 - 일시: 2016.12.15.
 - 장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세미나실
 - 발표: 이동연(한예종 교수)

「로컬서사와 재현 총서팀 협동세미나」

- 일시: 2016.12.20.
- 장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세미나실
- 발표: 김동규(부산대, 인문학교섭 대표)

「마을연구와 로컬리티 연구 총서팀 협동세미나」

- 일시: 2017.1.4.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소회의실
- 발표: 이동일(창원대), 변광석(부산대), 차윤정(부산대), 양흥숙(부산대), 공윤경(부산대), 전은희(오사카시립대)

「트랜스 로컬리티와 경계의 재해석 총서팀 협동세미나」

- 일시: 2017.1.12.
- 장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세미나실
- 발표: 예동근(부경대 교수)



제6회 해항도시 국제학술심포지엄(공동주최)

「해항도시, 축적된 과거와 미래의 발굴」

- 기간: 2016.11.24.~25. • 장소: 인하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관 107호
- 발표: 이은상(부산대) 외 8명



초청강연회

로컬리티인문학연구단 제14회 해외학자 초청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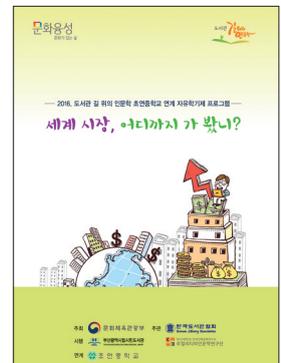
「우리시대의 마이너리티」

- 일시: 2016.10.5. • 장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세미나실
- 강연: 강상중 교수(도쿄대 명예교수)

시민강좌

“길 위의 인문학”

- 2016.10.4.~10.25. - 도시, 그 생존의 현장
-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인문학”(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과 공동주최)
- 2016.10.4. 도시에서 자율적 삶은 가능한가?
- 2016.10.11. 협동조합을 배우다:이탈리아 볼로냐의 실천
- 2016.10.18. 도시를 걷는 여성들
- 2016.10.25. 재난과 도시: 3.11이후의 일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세계 시장, 어디까지 가 봤니?”

- 2016.09.01. ~ 2016.10.13.
- “한국문화와 함께 하는 한국의 역사”
- 2016.09.10. ~ 10.15.
- “길 위의 인문학”
- 2017.1.17.~19. - 영화로 떠나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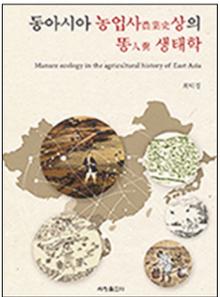


독서한담

강명길 | 휴머니스트 | 2016

대단한 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책, 별다른 가치가 없는 책, 헌 책방 구석에 있던 책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40여 년 동안 늘 책과 함께한 학자이자 애서가가 들려주는 소소하지만 즐겁고, 가볍지만 색다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독서의

풍경을 전한다. 정약용과 이덕무의 책 빌리는 방법, 영영 사라질 뻔한 책, 경성의 베스트셀러,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까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귀 기울이게 되는 흥미진진한 세계를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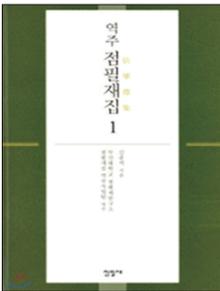


동아시아 농업사(農業史)상의 똥(人糞) 생태학

최덕경 | 세창출판사 | 2016

본 저서는 동아시아에서 똥이 폐기물이 아니라 유용한 자원이었음을 역사적으로 밝혔고, 동아시아 전통농업의 가장 특징적인 비료인 똥오줌의 이용과 보급·변용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문명형성의 토대를 살폈다. 또한 이 책은

근대 이후 농약과 화학약품이 유기비료를 대체하면서 생태계의 파괴와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저서로 주목된다. 특히 동아시아 분뇨와 축간의 변천사는 문명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이면서 농업생태계와 사회경제의 변화도 동시에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그 변천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필자는 우선 고대 중국 분뇨시비의 출현과 확산을 다뤘으며, 그 속에서 분(糞)이 지닌 의미와 효용성, 가축 똥에서 사람 똥으로 비료가 확대되는 것에 주목했다.



역주 점필재집 1~5

김승룡·김남이 외 | 2016

본 번역서는 점필재연구소 설립과 동시에 착수하여 10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 기존 번역서가 있음에도 다시 번역한 것은 전문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상세한 주석과 직역에 충실한 번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점필재 김종직은 정몽주로

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한 도학자이자, 김굉필, 정여창 등 사림파의 핵심 인물을 키워내 조선 성리학 발전과 정치 개혁의 초석을 놓은 사림파의 영수, 큰 스승으로 평가받았다. 『점필재집』은 그런 그가 직접 지은 작품들을 모은 문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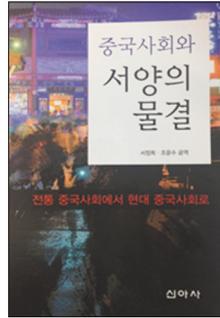


이즈미시키후집

이즈미시키후 지음 | 노선숙 옮김 | 지식울만드느 지식 | 2016

일본 헤이안 시대 3대 재녀 중 하나인 이즈미시키후의 와카집(和歌集)이다. 와카는 일본 전통시 가운데 5·7·5·7·7조의 5구 서른한 음절로 이루어진 정형시로 당시 재치를 뽐내는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이 책은 이즈미시키후의

열정과 당당함, 섬세함이 넘쳐흐르는 900여수의 와카를 번역, 소개한 신간이다.



중국사회와 서양의 물결(西潮)

장몽린 지음 | 서정희, 조윤수 옮김 | 신아사 | 2016

이 책의 저자는 1930년에서 1947년까지 북경대학 총장을 역임한 장몽린(蔣夢麟 1886-1964)이다. 이 책은 장몽린이 태어나면서 194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서술한 자서전 혹은 회고록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대만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애독서로 일부 내용은 교과서에 실려 소개되기도 하였다. 장몽린은 전통중국사회의 모습과 서양문화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변모해 가는 중국사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일전쟁, 노일전쟁, 무술정변, 의화단사건, 5.4운동, 신해혁명, 군벌의 할거, 북벌, 국공투쟁, 서안사변, 중일전쟁 등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중국인이 겪었던 생생한 중국 연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사회와 중국인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범패의 역사와 지역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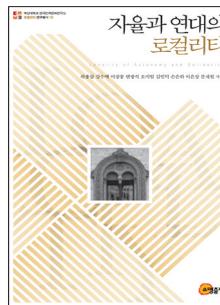
윤소희 | 민속원 | 2016

『범패의 역사와 지역별 특징

-경제, 영제, 완제 어떻게 다른가? -』

이 책은 범패의 기원과 전개, 한반도에서의 역사와 더불어 서울·경기 호남·영남지역을 발로 직접 찾아다니며 각 지역의 수많은 승려들을 만난 기록물이다. 이 과정에 그들의 범패를 녹음,

채보하여 서울의 경제, 부산의 영제, 호남의 완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책이 담고 있는 범패의 역사는 한국 전통음악의 원류를 파악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국을 다니며 범패 전승 현황과 음악적 실체를 규명한 내용들은 훗날 21세기 한국 범패의 현주소를 전해 줄 증거이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율과 연대의 로컬리티

하용삼 외 8명 | 이소명출판 | 2016

이 책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연대'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들을 로컬리티와 관련시켜 다루고 있다. 대안적 연대라는 용법으로 사용한다면, 탈근대라는 '시기적' 측면과 로컬리티라는 '스케일'의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로컬리티와 관련

지워 자율과 연대를 다루는 것은, 삶의 터전인 로컬이 한편으로는 자본이 추구하는 이윤 논리와 권력의 위계 논리가 가장 철저하게 관철되는 현장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면적 상호관계와 생활의 공동성 등을 토대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자율적 연대가 싹틀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로컬의 당면과제 해결과 공생의 방안 모색에 연대성이 어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를 고찰하는데 도움이 된다.